

코로나19 사회상 영화에 담아

전주국제영화제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 국내외 총 11편 영화 소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영화는 계속됐다. 지난 6일 전체 상영작을 공개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세계의 달라진 풍경을 한자리에 모은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이 언론과 관객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셜 포커스'는 그해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는 섹션으로 올해 코로나19를 주제로 삼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돌아보기 위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외 총 11편의 영화가 소개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작품은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미술 작가이자 인권 운동가, 다큐멘터리 작가인 아이웨이웨이의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룬 다큐멘터리 <코로나이션>이다. 아이웨이웨이 감독은 우한에서 활동 중인 여러 명의 다큐멘터리 작가와 일반인들의 영상을 받아 편집해 이번 영화를 완성했다. 또 한 편의 중국 영화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 감독 웨이안이 위독한 노인을 두고 삶과 죽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평범한 중국 가족의 모습을 그린 <방주>를 상영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여러 영화 감독들이 함께 만든 다큐멘터리 <코로나의 밀라노> 역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풍경을 독특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코로나19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밀라노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는 창작자들의 시선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진다. 코로나로 봉쇄된 도시 속 일반인들의 삶을 담은 이 영화는 전주 시민들이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고품질 영상을 통해 소개된다. 미카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자비로운 밤> 역시 봉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작가인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코로나이션>의 한 장면. 이 다큐멘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쇄 조치가 내려진 핀란드 헬싱키를 배경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한 술집과 세 남자의 모습을 담았으며, 트럼프 정부의 무능과 미국 사회의 부정 부패로 인해 공중 보건 시스템 전반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고발한 다큐멘터리 <토탈리 언더 컨트롤> 역시 기대작 중 한 편이다.

해의 작품 5편과 함께 한국작품은 6편이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에서 소개된다. 먼저 주목할 작품은 지난해 한국단편경쟁에서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을 선보였던 김아영 감독의 신작 <수리술 수중 연구소에서>다.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로 해조류 연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삼게 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수리술 수중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소하일라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김아영 감독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를 보여준다. 이은지, 박재범 감독의 <지해로운 방구석 생활>은 이직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로 방구석 생활을 전전하는 서른

살 지해의 일상을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에 담아낸다. 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사건을 다룬 김규진 감독의 <새 가족>,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배달의 시대에, 배달 대행 일을 하는 성준을 주인공으로 그린 전제민 감독의 <배달하는 삶>, 화상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게 된 코로나 시대의 풍경을 담은 제환규 감독의 <정말, 정말로 축하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상대방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풍경을 포착한 고선영 감독의 <미주>도 이번 섹션에서 소개된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사회상을 담은 영화들을 통해 팬데믹 시대의 삶과 고통,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은 영화들을 스페셜 포커스: 코로나, 뉴노멀에서 선보이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고창 선운사 영산전



고창 석탄정



고창 삼호정



고창 전봉준 생가터

고창 문화유산, 전북도 문화재 지정

고창 선운사 영산전 · 고창 석탄정 · 고창 삼호정 · 고창 전봉준 생가터 총 4건

고창군 죽림리 당촌마을의 전봉준 생가터 등 고창지역의 문화유산이 전북도 지정문화재로 4건이나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고창 선운사 영산전(도유형 제277호)', '고창 석탄정(도유형 제278호)', '고창 삼호정(도유형 제279호)', '고창 전봉준 생가터(도기념물 제146호)'가 전라북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와 기념물로 각각 지정됐다.

이번 지정된 문화재들은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를 거쳐 문화재 지정예고(30일간)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도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 심의 후 최종 확정됐다.

도 유형문화재와 도기념물로 지정된 4건을 살펴보면, '고창 선운사 영산전(高敞 禪雲寺 靈山殿)'은 대웅전, 만세루와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이다. 1713년에 2층 각황전으로 창건되었다가 1821년 단층으로 재건하는 등 연혁과 관련된 기록이 명확하고, 19세기 초 부분 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고주 7량가 양식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찰의 영산전 건물과 다른 형식의 구조, 공포, 평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적 독창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또 영산전 내에는 고창 선운사 영산전 목조삼존불상(도유형문화재 제28호) 및 16나한상과 함께 건물 내부 벽면에는 1821년 재건 당시의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 미술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등 건립 당시의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고창 석탄정(高敞 石灘亭)'은 1581년 석탄(石灘) 류운(柳雲)이 낙향 후 학문 강론을 위해 건립한 정자(1830년 중건)다. 넓은 평야에 동산처럼 솟아있는 언반지대에 운치 있게 나무와 정자를 세워 유유자적하며 풍류와 학문을 즐기던 공간으로 전해진다.

전라북도 누정 중에서 장진연대가 빠르며, 정

면 3칸, 측면 3칸, 홀처마 팔작지붕 등 건축물의 기구구조가 독특해 건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고창 삼호정(高敞 三湖亭)'은 육천조씨 삼형제(인호 조현동, 덕호 조후동, 석호 조석동)의 호(湖)를 따서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중건한 정자다. 정면 3칸, 측면 3칸, 홀처마 팔작지붕 구조 등 조선 후기의 건축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주변 경관이 우수하다. 또한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지냈던 당시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고창 전봉준 생가터(高敞 全奉準 生家址)'는 '동학사', '병술보' 등 학술 고증과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 각종 학술조사, 학술대회, 춘로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전봉준(全奉準, 1855~1895) 장군'이 1855년 12월 3일 죽림리 당촌마을에서 태어나 13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전봉준 생가터'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혁명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도모하고 이끈 최고의 지도자가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상징적인 장소로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4건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문화재 지정·승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고창군이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첫 수도'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고창 무장기포지', '고창 문수사 대웅전', '고창오거리당산제', '고창농악'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고창 삼귀리 고인돌군'에 대한 도기념물 지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창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감과 함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세계유산도시 사진전 공동개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홍선)은 4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세계유산도시 사진전 '모두의 기억, 내일의 세계유산도시(Memory of the World, Cities of the Future)'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OWHC-AP)와 세계유산도시기구 정회원인 경주시, 익산시와 공동개최하는 전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는 매년 세계유산도시 국제사진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사진전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세계유산 미루사지 내에 자리잡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곁을 걷은 세계유산', '세계유산과 도시', '세계유산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 세계유산' 등 네 가지 주제로 총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유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작품들은 세계유산도시 익산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며,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다른 세계유산도시의 매력들을 알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어린이공연장, 과학의 달 기념 공연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공연으로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미술을 소재로 한 연극 '황금사과와 전쟁'을 오는 16일과 19일(각 10시, 13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황금사과'를 소재로 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과학적인 원리의 미술 공연을 결합해 재구성한 연극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선보이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가용좌석의 30%(100석) 운용하고, 공연 당일에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객석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